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I.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

1.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개인 보험가입률은 92.1%로 조사되어 20세 이상 인구 10명 중 약 9명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81.4%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65.0%로 전년 대비 5.5%p 상승함.

<표 1> 개인별 보험가입률

(단위 : %)

구 분	가입률		증가율(%p)
	2009년	2010년	
생명보험	81.8	81.4	△0.4
손해보험	59.5	65.0	5.5
전 체	92.0	92.1	0.1

- 개인특성별 보험가입률을 살펴보면 직업이 무직/기타에 해당되거나, 저학력, 저소득 등 경제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체 보험가입률에 있어 남녀 간 차이는 거의 없으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여성의 가입률이 높고, 손해보험은 남성의 가입률이 높음.
- 미혼자의 보험 미가입률은 20.4%로 기혼자 대비 16.1%p 높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미혼자의 51.5%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개인별 보험 미가입률 : 특성별

(단위 : %)

구 분		생명+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성별	남성	7.4	21.0	20.9
	여성	8.4	16.2	48.8
직업	화이트칼라	5.5	14.5	25.8
	블루칼라	9.7	28.2	35.2
	자영업	5.5	15.4	26.0
	농/림/수산업	13.3	33.3	30.0
	주부	2.4	7.3	47.8
	무직/기타	43.3	56.7	76.1
학력	중졸 이하	23.7	36.8	64.5
	고졸	5.5	16.7	33.3
	대재 이상	8.7	18.2	32.6
결혼 여부	기혼	4.3	13.8	30.2
	미혼	20.4	35.2	51.5
소득	저소득	13.5	29.5	47.3
	중소득	5.3	13.3	31.3
	고소득	4.9	13.2	22.1

□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조사 결과,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이 72.4%로 높은 반면, 사망보장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20%대,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6%대의 가입률을 보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변액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20대의 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변액보험의 경우 2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종목에서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보험가입률이 높음.

○ 또한 모든 종목에서 무직/기타,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며, 타 계층과의 가입률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 변액보험의 경우 다른 종목에 비해 대부분의 계층에서 9% 이하의 보험 가입률을 보였으나,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12.7%의 가입률을 보임.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 특성별

(단위 : %)

구 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연령	20대	55.9	14.1	9.5	6.4
	30대	72.3	33.3	25.5	7.9
	40대	79.0	32.6	23.9	7.2
	50대 이상	76.7	25.4	22.7	4.1
직업	화이트칼라	71.9	32.4	23.4	9.0
	블루칼라	63.0	25.0	15.3	6.5
	자영업	76.8	29.7	26.3	6.8
	농/림/수산업	56.7	23.3	20.0	6.7
	주부	85.8	23.9	21.1	3.2
	무직/기타	37.3	6.0	3.0	0.0
학력	중졸 이하	57.9	15.8	13.2	2.6
	고졸	75.8	28.1	20.6	4.7
	대재 이상	70.2	26.7	23.1	8.5
결혼 여부	기혼	78.3	29.5	24.7	6.0
	미혼	52.2	17.4	8.9	6.3
소득	저소득	62.3	19.3	14.5	2.8
	중소득	77.1	29.5	22.9	6.0
	고소득	77.9	32.8	28.9	12.7
2010년 가입률		72.4	26.8	21.2	6.1
2009년 가입률		69.8	29.4	18.3	6.8
증가율(%p)		2.6	△2.6	2.9	△0.7

□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조사 결과 장기손해보험은 개인 가입률이 47.3%로 전년 대비 10.7%p 상승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4.6%로 전년 대비 0.5%p 하락함.

- 장기상해, 장기건강보험 등의 가입률이 상승하면서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상승함.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모두 연령별로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낮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낮은 가입률을 보임.
- 또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나 저소득 계층의 경우 장기손

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에서 낮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이들 계층의 가입률이 다른 계층의 가입률과 큰 차이를 나타냄.

<표 4>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 특성별

(단위 : %)

구 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연령	20대	32.3	2.7
	30대	52.4	6.7
	40대	50.4	5.4
	50대 이상	49.9	3.7
학력	중졸 이하	26.3	2.6
	고졸	49.2	5.5
	대재 이상	48.1	3.7
결혼 여부	기혼	51.4	5.2
	미혼	33.3	2.6
소득	저소득	35.4	3.3
	중소득	50.6	4.0
	고소득	60.8	8.8
2010년 가입률		47.3	4.6
2009년 가입률		36.6	5.1
증가율(%p)		10.7	△0.5

2. 가구당 보험가입 현황

-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6.4%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0%p 하락함.
- 2003년 이후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을 정점으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생명보험의 경우 2009년 대비 1.9%p 하락한 88.0%,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5%p 하락한 85.9%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을 보임.

<표 5> 가구당 보험가입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생명보험	84.6	86.0	87.2	90.8	89.9	88.0
손해보험	78.4	78.5	82.3	86.3	87.4	85.9
전 체	93.4	94.4	95.6	97.7	97.4	96.4

- 가구 특성에 따른 가입률을 살펴보면, 세대주의 직업이 무직/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세대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 다른 가구 그룹에 비해 가구 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는 연간 가구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과 무주택 가구와 같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생명보험의 경우 세대주가 대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 간의 가입률 차이가 21.3%p,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 차이가 17.8%p, 주택보유 가구와 무주택 가구 간의 차이가 12.9%p로 나타남.
 - 손해보험의 경우 세대주가 대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 간의 가입률 차이가 23.4%p,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 차이가 25.4%p, 주택보유 가구와 무주택 가구 간의 가입률 차이가 16.5%p 차이를 보임.

<표 6> 가구당 보험가입률 : 특성별

(단위 : %)

구 분		생명+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8.9	94.1	92.0
	블루칼라	93.9	80.3	76.3
	자영업	97.7	89.5	87.7
	농/림/수산업	88.9	75.9	77.8
	주부	90.9	72.7	81.8
	무직/기타	80.5	70.7	65.9
세대주 학력	중졸 이하	85.3	69.5	66.3
	고졸	97.1	88.7	86.0
	대재 이상	97.7	90.8	89.7
소득	저소득	91.3	76.8	70.7
	중소득	98.8	93.0	92.4
	고소득	99.0	94.6	96.1
주택 소유 여부	소유	98.0	90.8	89.5
	무주택	90.9	77.9	73.0
가입률		96.4	88.0	85.9

3.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조사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나 금융 위기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보험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어떠한 종목의 생명보험에도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3.1%p 감소한 65.2%, 어떠한 종목의 손해보험에도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7.1%p 감소한 36.4%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질병보장보험에 대한 향후 가입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가입 의향과 비교해 보면 변액보험에 대한 향후 가입 의향이 작년 대비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이 각각 전년 대비 4.5%p, 2.1%p 증가함.

<표 7> 보험 상품별 가입 의향 비교

(단위 :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 보장	사망 보장	저축성 보험	변액 보험	의향 없음	장기 손해	일반 손해	의향 없음
2009년	16.0	6.3	12.8	3.3	68.3	19.8	6.2	43.5
2010년	16.9	6.7	14.4	5.8	65.2	24.3	8.3	36.4
증가율 (%p)	0.9	0.4	1.6	2.5	△3.1	4.5	2.1	△7.1

* 사망보장보험에는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이 포함됨.

- ☐ 현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가입 이유로 ‘위험 대비를 위한 보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함.

<표 8>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 응답)

(단위 : %)

구 분	위험 보장	노후 자금 마련	목돈마련 저축수단	자산증식 투자수단	유산 상속 목적	세계 혜택 유리	기타
생명보험	96.6	19.3	10.4	2.3	5.0	0.4	0.3
손해보험	98.2	1.3	1.4	0.3	0.5	0.4	0.2

- ☐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로는 질병보장보험과 사망보장보험은 ‘위험 보장’을, 저축성 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변액보험은 ‘위험 보장’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한다는 응답이 높아 보험상품의 특성이 반영됨.

<표 9>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

(단위 : %)

구 분	질병보장	사망보장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위험 보장	98.6	64.2	22.8	31.5
목돈 마련 저축 수단	0.8	3.4	29.9	21.9
노후자금 마련	0.6	17.1	51.6	39.7
자산 증식 투자 수단	0.0	2.8	3.5	5.5
유산 상속 목적	0.0	12.1	3.1	2.7
세제혜택 유리	0.1	0.3	0.8	0.0

4.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향후 보험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 서비스 지원능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향후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더 확대되었으며, 브랜드 신뢰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됨.

<표 10>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

구 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0	2009	2010	2009
상품 경쟁력	43.8	32.8	41.8	30.7
브랜드 신뢰성	21.8	26.9	17.9	29.1
서비스 지원	12.2	10.2	14.2	12.4
가격 경쟁력	8.5	12.8	11.5	15.0
개인적 관계	5.3	6.4	6.2	8.0
회사 규모	3.5	4.8	3.8	1.7
설계사 전문성	1.8	—	1.6	—
경영 철학	1.3	1.5	1.1	0.8
과거 거래 경험	1.0	2.5	1.2	1.6
계약 편의성	0.8	—	0.8	—

* 상품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Ⅱ. 보험판매채널 및 보상위험 분석

1. 보험판매채널 성장 가능성

□ 판매채널의 향후 선호율과 현행 가입률 간의 차이를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모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 전통채널의 비중은 축소, 인터넷, TM, 홈쇼핑 등 신채널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11> 전통채널(설계사·대리점)의 성장 가능성

(단위 :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향후 선호율	현행 가입률	성장 가능성 (%p)	향후 선호율	현행 가입률	성장 가능성 (%p)
전 체	86.8	93.1	△6.3	80.5	88.5	△7.9
남자	87.6	94.4	△6.8	80.6	89.4	△8.8
여자	85.9	91.9	△5.9	80.4	87.0	△6.7
20대	82.2	94.1	△11.9	71.4	86.6	△15.2
30대	86.2	91.1	△4.9	77.2	87.4	△10.2
40대	83.3	94.4	△11.0	82.8	87.3	△4.6
50대 이상	94.1	93.0	1.1	85.6	90.5	△4.9
기혼	88.7	93.1	△4.5	83.4	88.5	△5.1
미혼	82.6	92.7	△10.2	70.0	88.0	△18.0

<표 12> 신채널(TM, CM, 홈쇼핑)의 성장 가능성

(단위 :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향후 선호율	현행 가입률	성장 가능성 (%p)	향후 선호율	현행 가입률	성장 가능성 (%p)
전 체	6.6	3.3	3.3	17.1	9.7	7.4
남자	7.6	2.7	4.9	17.3	9.6	7.7
여자	5.6	3.8	1.8	16.8	9.9	6.9
20대	8.5	1.3	7.2	21.8	10.3	11.5
30대	7.3	4.2	3.1	21.2	10.6	10.6
40대	6.4	3.2	3.2	16.7	11.3	5.5
50대 이상	4.2	3.5	0.7	12.2	7.8	4.3
기혼	5.2	3.6	1.5	15.1	9.5	5.6
미혼	9.8	1.7	8.2	24.1	10.5	13.6

□ 종목별 채널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면 향후 신채널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여전히 전통채널이 주된 판매채널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활용정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종목에 걸쳐 신채널 활용의 전반적인 확대가 예상되며, 은행채널은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임.
- 손해보험의 경우 모든 종목에서 전통채널과 은행채널의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채널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13> 생명보험 채널별 성장 가능성 : 종목별

(단위 : %)

구 분	향후 선호율			현행 가입률			성장 가능성(%p)		
	전통 채널	신채널	은행	전통 채널	신채널	은행	전통 채널	신채널	은행
저축성	85.1	5.2	7.5	94.9	1.6	2.3	△9.9	3.6	5.1
사망보장	90.0	7.5	1.3	96.6	0.6	0.9	△6.6	6.9	0.3
질병보장	88.2	8.4	1.5	94.9	2.6	1.5	△6.8	5.7	0.0
변액보험	82.6	5.8	10.1	91.8	1.4	2.7	△9.2	4.4	7.4

<표 14> 손해보험 채널별 성장 가능성 : 종목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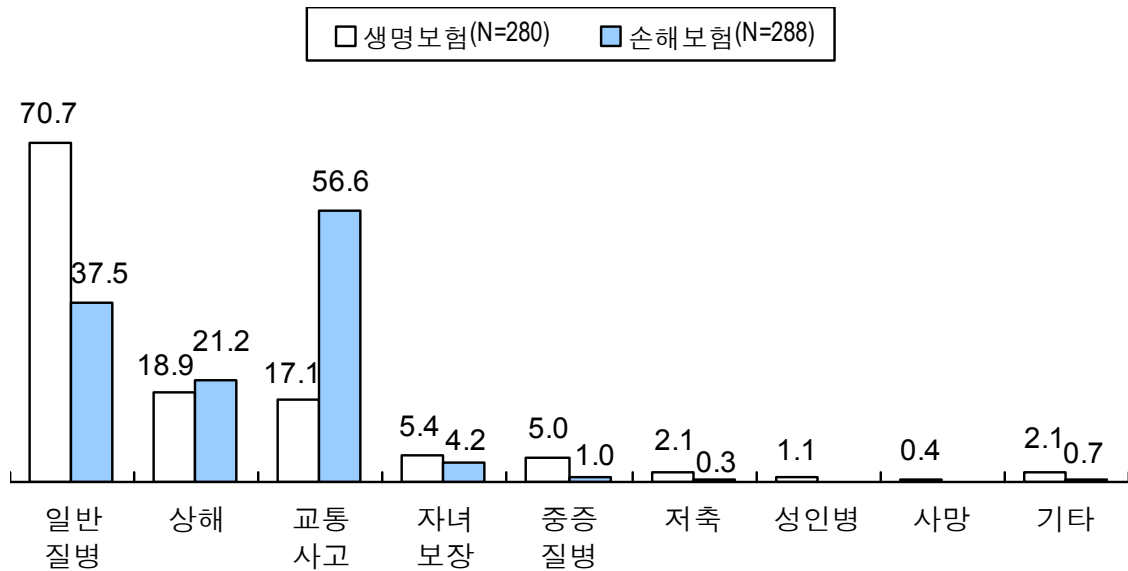
구 분	향후 선호율			현행 가입률			성장 가능성(%p)		
	전통 채널	신채널	은행	전통 채널	신채널	은행	전통 채널	신채널	은행
자동차	81.9	16.0	0.0	90.0	9.1	0.0	△8.1	6.9	0.0
장기손해	84.8	13.2	0.0	91.7	6.4	0.5	△6.9	6.8	△0.5
일반손해	68.3	27.7	0.0	87.3	9.1	1.8	△19.0	18.6	△1.8

2. 보상위험 분석

- 생명보험의 보상 수급 내용으로는 일반질병이 70.7%를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 비율이 높은 손해보험의 보상 수급 내용으로는 교통사고가 5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 항목으로 일반질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해가 18.9%, 교통사고가 17.1%의 비중을 차지함.
- 손해보험의 보상 급부 항목으로는 교통사고가 56.6%, 일반질병이 37.5%, 상해가 21.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보상 급부 항목(복수 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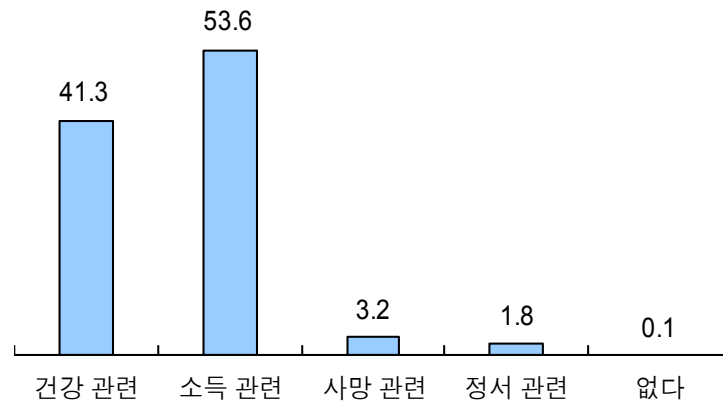
Ⅲ. 보험금융 제도 및 주요 이슈

1. 노후생활

-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소득감소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 불안(53.6%)과 의료비 및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에 대한 불안(41.3%) 등으로 응답함.
- 노후생활에서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서 모든 계층에서 소득 관련 불안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노후생활에서 소득과 관련된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노후생활에서 건강과 관련된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조사됨.

<그림 2> 노후생활 불안 요소

(N=1,200 / 단위 : %)



<표 15> 노후생활 불안 요소 :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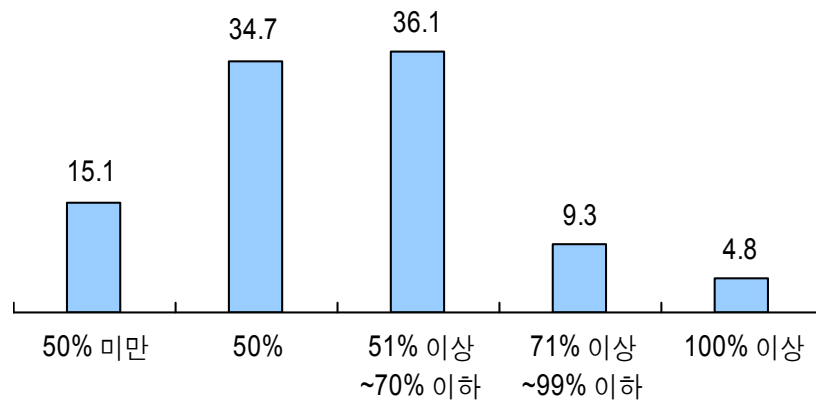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건강 관련	소득 관련	사망 관련	정서 관련
연령	20대	36.4	57.3	3.2	3.2
	30대	36.7	58.1	3.0	2.2
	40대	41.3	53.3	4.0	1.4
	50대 이상	46.7	49.2	2.7	1.1
소득	저소득	38.2	55.7	4.3	1.5
	중소득	42.5	53.2	2.5	1.8
	고소득	44.1	50.5	2.9	2.5

- 현재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후소득은 현재 소득수준의 58.9%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감안할 때 퇴직 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41.9%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 수준

(N=1,200 / 단위 : %)



<표 16> 필요 노후소득 수준과 마련 가능한 노후소득

(단위 : %)

구 분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 (현재 소득 대비)	마련 가능한 노후소득 (필요한 노후소득 대비)
연령	20대	62.3	43.5
	30대	60.0	44.9
	40대	57.9	41.8
	50대 이상	57.0	39.2
소득	저소득	59.8	41.1
	중소득	58.0	42.0
	고소득	59.4	43.0
전체		58.9	41.9

2. 자동차 사고 경험 분석

□ 응답자의 12.7%가 최근 1년간 자동차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은 기간 평균 사고 횟수는 0.15회로 조사됨.

○ 사고 횟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기혼보다 미혼,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많았으며, 미혼 남성과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사고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지난 1년간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 사고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17> 최근 1년간 사고 경험률 : 주행거리별

(단위 : %)

구 분	사고 경험 있다	사고 경험 없다
1만Km 미만	8.1	91.9
1만~2만km 미만	12.9	87.1
2만km 이상	17.0	83.0
전체	12.7	87.3